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영터리 환경평가 논란

초안보고서 저수량·수몰 면적 등 틀려

연구원 "일부 잘못, 보완할 것"...오늘 주민공청회

한국농어촌공사가 500억원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가 저수용량·수몰면적 등에 대한 잘못된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작성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 초안보고서는 올해 초 이미 실시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조사, 환경부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것으로, 공사기간(2011~2012년) 등 전체적인 일정을 감안하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요식행위여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 등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평가서에 광주저수지의 총 저수용량이 2175만㎡인데 5790만㎡로 잘못 표기돼 있으며 호수생태공원의 기존 수몰면적 역시 11만3618㎡와 13만4348㎡로 상이하게 기록돼 있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해 독높이가 기존 25.5m에서 27.6m로 2.1m 상승할 예도 불구하고 침수되는 호수생태공

원의 계획 홍수위(洪水位)가 기존 홍수 높이보다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고, 수위상승에 따른 가사문학권의 침수영향 여부 및 문화재별 저감 대책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토취장·점토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담양군 대덕면 문화리·금산리는 마을과 이격거리가 6~45m에 불과하고 토사운반 거리는 12km에 달해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총괄평가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및 호수생태공원 침수 등 중요도가 큰 중점평가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세히 조사해 평가서에 기술하고 특히 피해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제시해야 한다"고 적어 초안보고서가 미흡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광주시 역시 이번 초안보고서와 관련된 ▲가사문학권 일대와 호수생태공원의 침수 피해 ▲부인 예산에 비해 낮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사업방식을 저수지 바닥 준설 등으로 변경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지만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관계자는 "초안보고서에 일부 표기가 잘못된 것은 있으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본안보고서를 만들면서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나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사문학권까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미 예산이 마련된 만큼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호 독높이기 저지연대 관계자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독높이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31일 광주농협 총회지점 회의실에서 '광주호 농업용저수지 독높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덥다, 더워”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29.8도까지 치솟아 한여름 날씨를 보인 30일 문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체육시간이 끝난 뒤 수돗가에서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수능 11월 8일

현재 고교 2학년이 응시할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8일(목요일)에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발표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수능은 11월8일 실시되고 성적은 같은달 28일(수요일) 통지된다.

내년 수능일과 성적통지일은 11월10일 시행(11월30일 성적통지)되는 올해 수능보다 이틀씩 앞당겨졌다.

시험 영역 및 과목, 문항 수, 출제 형식, 성적 표기 등은 올해 수능과 큰 변화없이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내년 11월 28일 시도교육청 또는 출신 고교를 통해 응시생에게 전달된다. /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 감사원 감사자료 금감원 간부가 빼들려

발표 10개월전에 은행 측에 넘겨

정관계 구명로비 수사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보낸 대외비 자료가 감사발표 10개월 전에 피감기관인 부산저축은행으로 고스란히 넘어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10년간이나 유착돼 역대 뇌물과 정기적인 떡값을 받아왔던 금감원 간부가 감사 관련 자료를 대담하게 빼들려 은행 측에 넘긴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뇌물수수) 등으로 금감원 부국장급 감사역 이자극(52) 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감사원이 지난해 초 실시한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올해 3

월)하기 전인 작년 5월 강성우(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감사의 부탁으로 감사원이 금감원에 보낸 감사 관련 자료를 빼내 강 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밖에도 감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월·추석마다 100만~200만원씩 떡값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최근 5년간 수수한 1800만원만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뇌출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관계 고위층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7조 원대 금융부실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구속된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 외에 또 다른 로비스트인 박

모씨를 기용,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줄을 대려 한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씨가 정관계 고위층과 상당한 교분이 있는 거물급 로비스트라는 점에서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해 로비와 관련된 진술을 받아낸다면 금융감독원·감사원 등 감독기관 관련 인사는 물론 더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대생 우선채용

정부, 채용비용 경영평가 기준 새로 포함

이명박 정부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47개 비(非)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지방대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30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지방대생 채용비율'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이전은 2013년 이후에 완성되더라도 지방대 출신 우선 채용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로부터 과거 지방대 출신의 채용 비율과 향후 선발 확대 방안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직원 신규 채용때 공인 외국어 성적의 비중을 낮추고 면접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47개 공공기관의 신축 공사 건설과 관련, 전체 공사비의 40%는 지역 건설사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한울 정

한울정의 특징

- 1인 1실, 1:1 케어
- 한방 화장품 한울 정품 사용
- 금수저&은수저 마사지
-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사용 및 5% 적립 가능

아리따움 총장직영점 2층에 있습니다. ◆ 예약문의 : 062)432-3030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한울 停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의 조화와 균형 상태인 '울려'를 구현하기 위한 한울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